

법학도서관 장서의 대출현황 분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 S 대학 법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and Usage of Law Library Collection: A Case Study of Law Library in S University

안 주 연 (Jooyeon Ahn)**

김 성 희 (Seonghee Kim)***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법학 분야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S 대학 법학도서관의 2018년 1년 동안의 대출데이터를 분석하고 소장단행본이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S 대학 도서관리 시스템인 Alma 시스템으로부터 1년 동안 대출된 단행본에 대하여 주제별, 언어별, 출판 연도별로 분석하여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실제로 S 대학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을 법학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소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S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한 논문에 인용된 단행본을 도서관에서 얼마나 소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의 장서구성의 기준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Circulation data of Law library in the S university for one year in 2018 and analyzed whether the Library holdings are actually used for education and research.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d user patterns by analyzing subjects, languages, and publication years for books that were circulated for one year from the ALMA system which is an S university library system. In addition, we analyzed how the current library holdings were used or cited in course syllabi and research papers written by members in S universit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important basic data for effective collection development.

키워드: 법학, 법학도서관, 대출, 유용성, 장서, 평가

Law, Law Library, Circulation, Usefulness, Collection, Assessment

* 이 연구는 2019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사서(ajy99@sn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eonghee@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9년 11월 28일 논문심사일자 : 2019년 12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19년 12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4): 255-274, 2019.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4.255>

1. 서론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은 2006년에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9년 3월에 개원되었다. 법학도서관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시행령 제10조(교육시설)에서 정하는 핵심적인 교육시설 중의 하나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1817년 7월 하버드 로스쿨이 개교할 때부터 완전한 법학도서관(a complete law library)을 추구하였다. 하버드 로스쿨 학장이었던 Langdell은 로스쿨 교육을 위한 'Case book'을 출판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에서만 가능하며, 그 교육여건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법률도서관이 교과과정을 위한 중추, 법학교육을 위한 정보원, 법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원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서는 도서관을 '실험실 및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작업장'이라고 규정하며 도서관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Langdell 1887).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출범과 함께 우수한 법학 교육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 되었고, 그에 따라 우수한 교육내용 및 교육 여건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필수 시설로 지정된 법학도서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물리적인 역할이 아닌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

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서관 구성원들은 그 역할로서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에 따른 자료를 수집, 정리, 축적하여 이를 연구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으로서 장서의 전문성이 구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학도서관은 매해 급증하는 지식생산량과 폭등하는 자료 구입비에 대한 도서관 예산과 인력, 공간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중심 법학도서관은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실질적인 이용자 행태를 분석하여 자료를 선별적으로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학도서관 장서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2009년 법학전문대학도서관 제도 시행 이전에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장서평가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전에는 법학도서관 평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법학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학 분야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S 대학 법학도서관의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고 소장 단행본이 실제로 교육과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 대학 법학도서관 소장 단행본 중 법학분야를 중심으로 '류, 강, 목' 세부 구분하여 장서의 전체 구성에 대해 파악하고 주제별, 언어별, 출판 연도별로 소장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자 대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양적, 질적 이용 수준을 분석하였다.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도출된 데이터 패턴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 장서에 관한 연구는 1933년에 처음으로 시카고 대학 도서관 M. Llewellyn Raney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장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문헌에 보고된 최초의 설문 자체 조사로서 300개의 참고 문헌을 사용하여 전체 장서를 연구하였다. 이 선구자적인 연구가 시카고 대학도서관의 발전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연구 중심인 대학 발전의 기틀까지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Evans and Margaret 2000). 1970년대의 경기 침체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미국의 대학 도서관들은 예산 절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한 장서개발의 개념과 정책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송영희 1992). 국내의 경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출판 양의 기하급수적 증가, 정보매체의 다양화 및 디지털화, 수장 공간 부족과 보존 서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장서의 유지, 관리를 더욱 중시하게 됨에 따라 도서관계는 자료 선택에서 장서보존까지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개념인 장서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서관 단행본의 장서통계 및 대출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장덕현(2013)은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특정 정치학 장서를 대상으로 장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과연 장서가 학과의 학부 학생들과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지원, 교수의 연구지원과 열

마나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며 개발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정치학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장서의 현황 및 최적성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영희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2017)은 2017년에 개관 예정인 충남대표도서관의 장서구성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개발한 후 이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장서구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신문(2008)은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의 장서평가'를 위해 자료의 소장 사항을 언어, 세부주제, 출판 연도별로 소장사항을 분석하고 2006년 1년간의 이용자의 대출통계를 분석하여 소장 장서를 양적, 질적 수준을 분석하였다. 나은영(2011)은 법률 도서관의 다양화되고 있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법학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법률도서관 유형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인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김황우(2012)의 연구에서는 법학 전문도서관의 학술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패턴과 요구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형태에 대해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법학전문도서관은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전문적이고 잘 조직된 도서관 자료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김에스더, 남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A의학도서관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이용자

의 대출기록을 유형별, 주제별로 분석하고 상위 대출빈도 도서와 상호대차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장서구성 정책에 있어 의학 주제 분야 도서에 국한하지 않고 교양도서를 포함한 이용자들의 실제적 이용에 기반한 장서구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양지안(2017)의 연구에서는 K대학도서관의 단행본 대출통계를 활용하여 2015년 1년간 횡단적 관점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종단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부생은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이용한 반면 대학원생과 교수는 전공 주제 분야에 편중되어 자료를 이용했으며, 모든 이용자들의 10년간의 대출행태는 매년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장서대출 패턴의 특성을 여러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홍유진(2019)의 연구에서는 K대학도서관의 2017년 1년간의 대출 패턴을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분석하여 디지털 세대의 이용자에게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서비스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의 주제별 분류와 서명을 기반으로 성별, 단과대학별, 학년별로 나누어 연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 향후 이용자 중심 도서추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학술활동을 도서관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장서매치 또한 이용자 중심적인 실질적인 장서구성이 가능해 전문적인 도서관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국외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Intner(2003)은 도서관 장서평가와 “좋은 장서”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였다. 사서는 미래의 더 나은 장서구축을 위해 도서관 장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장서에 대한 깊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용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만 “좋은 장서”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용어가 확립된다고 주장하였다.

Adams(2008)등의 연구에서는 인디애나대학교 과학도서관 장서를 1년간의 이용자 대출통계를 통하여 출판사, 출판 연도 및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신착 도서 보다 출판된지 오래된 도서의 대출 비율이 높았으며 모든 주제분야가 고르게 대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출 도서가 특정 출판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대출통계 분석이 도서관장서개발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Cheung(2011)의 연구에서는 15년간 대학도서관의 대출통계를 연도, 언어 및 주제 분류별로 구분하여 구입도서와 기증도서의 이용률을 분석하였다. 도서 대출은 도서가 도서관에 입수 된지 5년에서 7년 동안 매년 증가한 후에 안정화되고, 도서관 입수된 첫 해에 대출된 도서는 꾸준히 대출되지만 1년에서 2년 동안 대출된 적이 없는 도서는 15년 후에도 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서관 총 장서의 약 70%만 이용되며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도서 또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는 15년간의 비서구권 도서관 대출패턴을 분석하여 장서개발정책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로 이용자의 대출빈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아직까지 장서의 대출과 소장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학 분야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대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도출하였으며 법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3. 연구설계

3.1 S 대학 법학도서관 현황

1946년도에 개관한 S 대학 법학도서관은 4,279.9㎡의 도서관 시설 면적에 754석의 열람 좌석을 갖추고 약 17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단행본 도서는 구입과 기증의 두 가지 경로로 입수되는데 구입 도서의 경우 희망도서가 대부분이다. 입수된 도서는 Dewy Decimal Classification(DDC)을 이용하여 Exlibris사의 Alma 도서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도서관 이용은 자유개가제로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고문헌 자료실과 보존서고에 있는 자료는 폐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이 있다.

중앙도서관의 정책에 따라 운용되는 법학도서관의 유형별 이용자 대출 책 수와 기간은 현재, 교수 60책 90일, 대학원생 및 직원 30책 30일, 학부생 15책 14일이다. 다른 이용자의 예약이 없는 도서의 경우, 유형별 대출 기간의 3배까지 대출 기간을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S 대학 법학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과 함께 2017년도 법과대학이 완전히 폐지되고 대학원 중심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대학원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구성원은 <표 1>과 같다

S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8)이 발행한 연보에 따르면 교원 57명, 대학원생 1,227명으로 총 1,354명이다.

3.2 연구범위 및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S 대학 법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장서 현황을 다각도로 비교하고, 구성된 장서와 이용자 요구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정된 S 대학 법학도서관은 70년이 넘는 긴 역사와 17만 여권의 가장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법학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수의 장서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

<표 1>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현황

년도	전임교원	대학원생		학부	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2018	57	744	553	0	1,354

이 있다. 이용자 평가 측면에서도 25개 법학전문 대학원의 총 2,000명의 입학정원 중 가장 많은 150명의 신입생 정원과 교수 및 일반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 평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S 대학 법학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서구성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S 대학 법학도서관의 전체 소장 장서 수, 장서 증가량, 도서관 사용 분류법 등을 파악하였다.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을 기준으로 DDC 340(법학 분야)대의 법학 세부 주제별 장서 현황, 언어별 소장현황 및 장서의 최신성을 파악하였다.

S 대학 법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 분류 방법에 따라 DDC 22판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DDC에 따른 자료의 주제 분야에서 법학은 300(사회과학)의 340(법학)에 해당하며 이를 세부 분류하면 340(법일반), 341(국제법), 342(헌법, 행정법), 343(군법, 세법, 통상법, 산업법), 344(사회법, 노동법, 복지법, 보건법, 안전법, 교육법, 문화법), 345(형사법), 346(사법), 347(민사소송법), 348(법률, 명령, 판례), 349(특정 관할, 특정 지역법)로 구분할 수 있다. 장서 평가와 통계분석은 <표 2>와 같이 DDC 340(법학 분야)을 분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용자 평가를 위한 대상의 범위는 S 대학 법학도서관 이용자인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직원, 기타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실제 강의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리스트를 S 대학 수강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소장 자료가 실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원 논문의 경우 2018년도에 발행된 학위논문의 참고자료 중 단행본 자료만 추출하여 인용 분석을 위한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2018년도 83건의 석, 박사 학위논문에서 단행본 2,220건을 추출하여 도서관 소장 여부 및 주제별, 언어별, 출판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교수 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실린 논문을 기준으로 S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구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해 논문을 확보한 후에 교수 개별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후 단행본 목록만을 추출하였다. 2018년도 77건의 논문에서 인용된 857건의 단행본에 대하여 도서관 소장 여부 및 주제별, 언어별, 출판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표 2> DDC 법학 분야 전개

분류기호	표목	분류기호	표목
340	법일반	345	형사법
341	국제법	346	사법
342	헌법, 행정법	347	민사소송법
343	군법, 세법, 통상법, 산업법	348	법률, 명령, 판례
344	사회법, 노동법, 복지법, 보건법, 안전법, 교육법, 문화법	349	특정관할지역, 특정지역의 법

4. 데이터 분석

본 장에서는 S 대학 법학도서관의 단행본 장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적절한 장서를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단행본 대출 데이터와 이용자 유형별 이용 패턴을 바탕으로 이용자 요구 충족에 대한 소장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4.1 장서구성 현황 분석

4.1.1 주제별 분석

먼저 S 대학교 도서관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DDC 체계를 기준으로 2018년도 법학도서관의 단행본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로 구분하여 주제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S 대학 법학도서관의 전체 소장 자료 중 참고자료, 연속간행물, 학위논문, 비도서 등을 제외한 단행본 장서는 72,754권으로 법학(340) 분야가 포함된 사회과학(300) 분야의 장서가 약 91.60%를 차지하고 있었고, 역사(900), 문학

(800), 철학(100), 총류(000) 등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S 대학 법학도서관의 다수 장서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과학(300) 분야 중 DDC 체계의 340대 법학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S 대학 법학도서관의 2018년도 DDC 340대 법학 분야는 전체 장서의 약 73%를 차지하는 총 53,111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약 11% 감소한 수치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이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 추구를 지향하는 학문의 다양화와 세분화로 인해 다양한 주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학 분야 단행본의 약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346) 분야 장서의 편중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전공별 교수 수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DC 주제별로 S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전공 분야를 분류하면 <표 5>와 같다.

<표 3> S 대학 법학도서관 장서 현황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총류(000)	680(2.17%)	29(0.42%)	85(0.12%)	794(0.25%)
철학(100)	869(2.77%)	62(0.90%)	851(1.17%)	1,782(2.47%)
종교(200)	357(1.14%)	13(0.19%)	357(0.49%)	727(1.04%)
사회과학(300)	24,833(79.14%)	6,450(93.28%)	31,564(43.38%)	62,847(91.60%)
언어(400)	100(0.32%)	15(0.22%)	72(0.10%)	187(0.21%)
순수과학(500)	90(0.29%)	1(0.01%)	75(0.10%)	166(0.22%)
기술과학(600)	362(1.15%)	49(0.71%)	244(0.34%)	655(0.71%)
예술(700)	267(0.85%)	15(0.22%)	63(0.09%)	345(0.18%)
문학(800)	1,560(4.97%)	30(0.43%)	325(0.45%)	1,915(0.94%)
역사(900)	2,261(7.21%)	251(3.63%)	824(1.13%)	3,336(2.39%)
계	31,379	6,915	34,460	72,754

〈표 4〉 법학 분야 장서 현황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계
340	2,621(13.5%)	903(15.7%)	3,770(13.5%)	7,294(13.7%)
341	871(4.5%)	292(5.1%)	5,684(20.4%)	6,847(12.9%)
342	3,145(16.2%)	613(10.7%)	3,356(12.0%)	7,114(13.4%)
343	1,580(8.1%)	206(3.6%)	1,836(6.6%)	3,622(6.8%)
344	1,119(5.7%)	336(5.8%)	1,444(5.2%)	2,899(5.5%)
345	2,762(14.2%)	733(12.8%)	1,734(6.2%)	5,229(9.8%)
346	5,282(27.1%)	2,076(36.1%)	7,912(28.4%)	15,270(28.8%)
347	1,475(7.6%)	366(6.4%)	1,373(4.9%)	3,214(6.1%)
348	312(1.6%)	24(0.4%)	113(0.4%)	449(0.8%)
349	305(1.6%)	195(3.4%)	673(2.4%)	1,173(2.2%)
계	19,472	5,744	27,895	53,111

〈표 5〉 2018년도 S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전공별 분류

구분	교수 수	비율
법일반(340)	4	7.0%
국제법(341)	7	12.3%
공법(342)	10	17.5%
세법, 통상법 등(343)	5	8.8%
사회법, 노동법 (344)	3	5.3%
형사법(345)	5	8.8%
사법(346)	17	29.8%
민사소송법(347)	3	5.3%
법률, 명령, 판례(348)	0	0.0%
특정지역법(349)	3	5.3%
계	57	100%

위의 분류표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주제별로 구분한 교수의 수는 사법(346), 공법(342), 국제법(341) 순서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총 57명의 전임 교수 중 약 30%에 해당하는 사법(346) 분야 교수가 관련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공별 교수 수에 비례하여 주제별 장서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4.1.2 언어별 분석

S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법률가 양성을 위해 외국법 과목들을 필수적 선택 과목군으로 설정하고, 전(全)학년에 걸쳐 다수의 강의를 외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법학 세부 전공별 언어의 선호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법학도서관의 적절한 장서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S 대학 법학도서관의 법학 세부 언어별 장서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법학 세부 언어별 장서구성 현황

구분	권수	비율
한국어	19,472	36.7%
영어	12,473	23.5%
독일어	10,213	19.2%
일본어	5,103	9.6%
프랑스어	4,284	8.1%
이탈리아어	191	0.4%
중국어	641	1.2%
라틴어	133	0.3%
스페인어	341	0.6%
기타	260	0.5%
총계	53,111	100.0%

언어별 소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소장 비율이 36.7%로 가장 높고 영어 23.5%, 독일어 19.2%, 일본어 9.6%의 소장 순서를 나타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장서의 비율은 높지만, 독일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의 커리어 트랙(carrer track)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희망도서로 구입되는 장서의 언어별 구성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S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 대륙법계 해외 박사가 다수였지만 현재는 실무를 경유하고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가 42%의 비율을 차지한다. 대학원생도 마찬가지로 전업 연구생은 감소하고 실무 법조인 학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법학도서관 언어별 장서가 한국어와 영어 단행본 구성으로 더욱 편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4.1.3 출판 연도별 분석

사회과학 분야 중 하나인 법학 분야 자료는 최신성이 중요한 자연과학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기초법학 같은 전통적인 학문 영역을 필

요로 하는 분야가 있고 세법이나 상법 분야 등 최신 출판 연도 자료를 선호하는 주제 분야가 있다.

하지만 학문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면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편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된 최신 정보를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자료의 최신성도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출판 연도별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자료 이용 요구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S 대학 법학도서관의 장서를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로 구분하고 단행본의 출판 연도에 따라 1999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2000년도 이후의 자료는 5년 단위로 구분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대 이후 출판된 자료가 전체의 소장 장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내서 49.4%, 동양서 20.7%, 서양서 30.3% 비율로 국내서와 서양서의 최신성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동양서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Western Library Network(WLN) 장서평가 매뉴얼은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최근

<표 7> 법학 세부 출판 연도별 장서구성 현황

구분	2015-2018년도	2010-2014년도	2005-2009년도	2000-2004년도	1999 이전년도	계
국내서	4,678 (14.9%)	10,830 (34.5%)	8,408 (26.8%)	4,345 (13.8%)	3,118 (9.9%)	31,379 (100%)
동양서	285 (4.1%)	1,146 (16.6%)	1,573 (22.7%)	1,270 (18.4%)	2,641 (38.2%)	6,915 (100%)
서양서	2,535 (7.4%)	7,892 (22.9%)	7,329 (21.3%)	5,451 (15.8%)	11,253 (32.7%)	34,460 (100%)
계	7,498 (10.3%)	19,868 (27.3%)	17,310 (23.8%)	11,066 (15.2%)	17,012 (23.4%)	72,754 (100%)

10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가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 이상 차지하면 도서관 장서의 최신성을 유지한다고 판단한다(Powell and bushing 1992). 이를 근거로 인문, 사회분야에 속한 법학도서관의 장서가 비교적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대출 통계적 분석

4.2.1 주제별 분석

해당 기관의 장서구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실질적인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대출 데이터를 통한 자료 이용에 대한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8년도 S 대학 법학도서관 장서에 대한 대출 데이터에서 1회 이상 대출된 법학 분야 단행본 8,293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주제 분야별 장서 수의 차이가 대출 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절대값인 대출 건수만을 분석하지 않고 Bonn이 제안한 장서평가 이용계수(use factor: UF)를 적용하여 장서 수에 대한 이용비율 나타냈다.¹⁾ 이용계수는 도서관 총 대출 건수에서 주제 자료의 대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도서관 전체 장서 수에서 특정 주제 분야 장서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용계수 값이 1.0을 기준으로 높은 값일 때 장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용계수를 이용한 주제별 대출 데이터는 <표 8>과 같다.

교수 그룹은 346(사법) 분야 대출 건수와 348(법률, 명령, 판례 등) 분야 이용계수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공별 교수 수와 장서의 주제별 구성과 비슷한 패턴이며, 교수 수에 따라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학문적으로 관심 있는 전공 분야 위주의 대출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법학도서관의 다수 이용자 그룹인 대학원생은 346(사법) 분야 대출 건수와 341(국제법) 분야 이용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부생 그룹은 S 대학 타 전공 학생 중 학제 간 도서를 대출하기 위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기초법학이 포함되어 있는 340(법일반) 분야 대출 건수와 이용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 대학의 직원은 연구시설, 본부 및 대학 산하 연구기관, 기초교육원 및 도서관 등 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연구자의 연구지원을 위하여 도서를 대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S 대학 특성상 연구원이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 분야 자료의 직원 대출이 존재한다. 이러한 직원 그룹은 346(사법) 분야 대출 건수와 특정지역(349) 분야 이용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 대학 졸업생 중 연구목적으로 도서관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기타 이용자 유형도 직원 그룹과 동일한 대출 패턴으로 분석되었다.

4.2.2 언어별 분석

S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은 해외 교육기관 및 국제기구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교수들의 연구, 학생들의 해외 교육 및 실습이 국제사회의 실무현장과 사회개발의 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국법 과목들

1) 이용계수(use factor)=[(특정 주제 자료의 총 대출수÷도서관의 총 대출수)×100]÷[(특정 주제 분야의 장서수÷도서관의 총 장서수)×100].

〈표 8〉 주제별 대출 데이터 분석

구분	교수 대출건수 (이용계수)	대학원생 대출건수 (이용계수)	학부 대출건수 (이용계수)	직원 대출건수 (이용계수)	기타 대출건수 (이용계수)	계 대출건수 (이용계수)
340	126 (0.11)	710 (0.62)	135 (0.12)	79 (0.07)	67 (0.06)	1,117 (0.98)
341	51 (0.05)	970 (0.91)	94 (0.09)	71 (0.07)	34 (0.03)	1,220 (1.14)
342	173 (0.16)	974 (0.88)	101 (0.09)	67 0.06	36 (0.03)	1,351 (1.22)
343	50 (0.09)	405 (0.72)	25 (0.04)	11 (0.02)	10 (0.02)	501 (0.89)
344	32 (0.07)	251 (0.55)	27 (0.06)	13 (0.03)	3 (0.01)	326 (0.72)
345	34 (0.04)	617 (0.76)	49 (0.06)	28 (0.03)	26 (0.03)	754 (0.92)
346	459 (0.19)	1,569 (0.66)	101 (0.04)	111 (0.05)	70 (0.03)	2,310 (0.97)
347	45 (0.09)	404 (0.81)	22 (0.04)	20 (0.04)	19 (0.04)	510 (1.02)
348	23 (0.33)	34 (0.48)	1 (0.01)	5 (0.07)	4 (0.06)	67 (0.96)
349	25 (0.14)	63 (0.34)	9 (0.05)	28 (0.15)	12 (0.07)	137 (0.75)
계	1,018	5,997	564	433	281	8,293

이 필수선택 과목이다. 이에 이용자 학습지원에 대한 언어별 법학도서관 장서구성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별 대출 데이터를 Bonn의 이용계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학 분야 언어별 대출 데이터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든 그룹에서 한국어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그룹은 한국어와 독일어 자료를 비슷한 비율로 이용하였고,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순으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그룹은 한국어와 영어 자료를 선호했으

며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이 아닌 학부생의 경우 91.5%가 한국어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언어별로 가장 편중된 이용률을 나타냈다. 직원 및 기타 그룹의 경우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기타도서관의 언어별 동일한 패턴으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생이 직원의 신분으로 등록되어 있고, 졸업 후 학교 자료를 이용하기 위한 동문회원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룹에서 연구목적이 강한 대출 형태가 나타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9〉 주제별 대출 데이터 분석

구분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	계
교수	327	238	313	110	26	4	1,018
	32.1%	23.4%	30.7%	10.8%	2.6%	0.4%	100%
대학원생	4,181	1,317	177	185	99	38	5,997
	69.7%	22.0%	3.0%	3.1%	1.7%	0.6%	100%
학부	516	38	2	4	1	3	564
	91.5%	6.7%	0.4%	0.7%	0.2%	0.5%	100%
직원	227	128	37	40	1	0	433
	52.4%	29.6%	8.5%	9.2%	0.2%	0.0%	100%
기타	171	60	16	23	10	1	281
	60.9%	21.4%	5.7%	8.2%	3.6%	0.4%	100%
이용계수	1.78	0.91	0.34	0.45	0.20	1.54	1.00

전반적으로 한국어로 된 자료의 대출이 높고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자료에 대한 대출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수진의 커리어 트랙(carrer track)의 변화와 연구중심보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의 자료 이용 패턴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2.3 출판 연도별 분석

주제와 언어에 따른 이용 정도를 분석하는 것만큼 법령 개정이 잦은 법학 분야의 자료의 특성상 장서의 최신성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S 대학 법학도서관 법학 분야에 따른 장서의 최신성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제별 대출 데이터의 출판경과연수²⁾를 분석하였고, 이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출판경과연수를 파악하기 위해 2018년도에 S 대학 법학도서관에서 대출된 8,293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별 대출평균은 2007.1년

도로 산출되었다. 출판경과연수는 분석대상 해인 2018년도에서 대출평균 값을 뺀 값으로 주제별 평균 11.3년으로 산출되었다.

그 결과, S 대학 법학도서관 이용 자료의 출판경과연수가 짧게는 7.9년 길게는 15.1년으로 그 차이가 약 7.2년으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근거로 이용되는 자료가 주제에 따라 최신성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별 평균 출판 연도인 2007.1년도를 기준으로 342(공법), 343(세법, 통상법 등), 344(사회법, 복지법 등), 345(형사법), 346(사법), 347(민사소송법) 분야가 평균보다 높은 출판 연도로 나타났고, 340(법일반), 341(국제법), 348(법률, 명령 관례 등), 349(특정지역법) 분야가 평균보다 낮은 출판 연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제법 분야에 따른 출판 연도 분석으로 법학도서관 물리적 공간 확보와 같은 적절한 장서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출판경과연수=대출자료 분석 대상 연도(2018)-대출 평균값.

〈표 10〉 주제별 대출 데이터 출판경과연수

구분	대출건수	대출평균연도	출판경과연수
340	1,117	2003.4	14.6
341	1,220	2003.6	14.4
342	1,351	2008.4	9.6
343	501	2009.7	8.3
344	326	2010.1	7.9
345	754	2009.3	8.7
346	2,310	2008.4	9.6
347	510	2008.4	9.6
348	67	2002.9	15.1
349	137	2002.9	15.1
계	8,293	2007.1	11.3

그렇다면 이용자 유형별로 출판 연도에 따른 자료 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 유형별로 대출된 자료의 출판 연도를 사용하여 출판경과연수를 산출하였다. 이용자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출판경과연수는 교수 14.8년, 대학원 10.3년, 학부 7.9년, 직원 14.6년, 기타 11.2년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유형별 평균 출판경과연수를 11.8년이라고 할 때, 학부와 대학원 그룹이 교수, 직원 및 기타로 분류되는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최신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구성원이 아닌 학부생의 경우 법학도서관의 신간 교양서적 및 학제 간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학부생을 제외한 이용자는 자료의 최신성보다 연구 목적에 따른 이론이나 역사적 사실 등에 근거한 적합한 자료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장서 유용성 분석

도서관 장서는 이용자의 이용 빈도에 따라 궁극적인 가치가 결정되고 그 장서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장서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다. 즉,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장서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하는가에 따라 장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소장 장서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S 대학 대학원 수업과 관련한 2018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계획서 상의 단행본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용 리스트로 작성하고 S 대학 법학도서관에서 자료의 소장 여부를 주제, 언어, 출판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8년도 1, 2학기 일반대학원 97강좌, 법학전문대학원 146강좌로 총 243 개설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통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총 326권이였다. 이 중 단행본은 전체 참고문헌 수의 83%인 269권으로 나타나 단행본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행본 소장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69권 중 도서관 소장 227(84%)권, 미소장 42(16%)권이다. 이는 Intner 주장한 대학도서관 장서의 적절한 구성을 강의계획서 상의 90% 이상 소장이라고 기준으로 할 때, S 대학 법학

도서관의 장서는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장서구성이 미흡한지 파악하기 위해 강의계획서상 교재 및 참고문헌으로 평가용 리스트를 작성해 법학도서관 소장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주제별로 표시해 본 결과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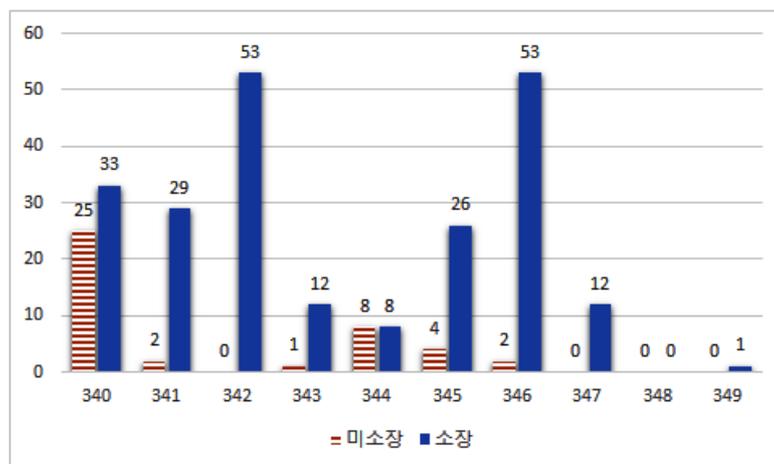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법(342), 사법(346) 분야가 법학도서관의 소장률이 가장 높은 반면에 법일반(340), 사회법과 노동법 등(344) 분야는 법학도서관의 미소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사실과 같이 장서의 편중된 구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미소장 자료는 법제사, 법인류학, 법사회학, 사회보장, 인권법 등 국내서와 Law as Culture, Pathologies of Power, The Energy Reader 등 기초법, 사회법 분야가 다수였으며, 전체적으로 학제 간 교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의계획서상 교재를 법학도서관 소장 자료 227권과 미소장 자료 42권을 구분하여 언어별로

리스트체킹 한 결과, 한국어 185(69%)권, 영어 33(12%)권, 독일어 6(2%)권, 일본어 3(1%)권이 법학도서관에 소장되었고, 한국어 자료를 포함한 42(16%)권이 도서관에 미소장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강의계획서상 교재를 출판년도별로 구분하여 5년 단위로 살펴본 결과, 1999년도 이전 26(11%)권, 2000~2004년도 18권(8%), 2005~2009년도 30(13%)권, 2010년도~2014년도 58(26%)권, 2015~2018년도 95(42%)권으로 최신 자료 소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강의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데이터 결과는 추후 효율적인 장서구성을 위한 정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이용자의 양적, 질적 정보요구 만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국내서 개정판의 최신성 유지, 학제 간 연구 장서의 확충, 강의계획서 선입수를 통한 기획수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법학도서관 장서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2018년도 강의계획서에 있는 단행본 소장 여부현황

한편, 소장 장서가 연구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대학원 그룹과 교수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학원 석, 박사학위논문과 교수 연구 논문에 인용된 단행본으로 평가용 리스트를 작성해 법학도서관 소장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석사논문 58편, 박사논문 25편으로 총 83편 중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단행본은 2,220권이며 법학도서관에 이 들 중 53%인 1,174권이 법학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석, 박사학위논문에 인용된 문헌(단행본)을 주제별로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석, 박사학위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사법(346)을 중심으로 국제법(341), 공법(342), 형사법(345) 분야의 주제별 인용문헌을 많이 이용했으며, 석사학위논문보다 박사학위논문에 인용된 문헌이 8% 이상 법학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된 문헌을 언어별로 법학도서관 소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이 동일하게 한국어, 영어, 독일어 자료 순으로 인용건수가 높았고, 한국어와 영어 자료의 법학도서관 소장률이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석, 박사학위논문의 인용문헌(단행본) 언어별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1> 석, 박사학위논문 인용문헌(단행본) 주제별 현황

구분	석사			박사		
	인용건수	소장건수	소장비율	인용건수	소장건수	소장비율
340	25	17	2%	30	20	2%
341	165	84	9%	216	130	10%
342	146	76	8%	245	119	10%
343	31	18	2%	83	45	4%
344	21	5	1%	25	16	1%
345	133	37	4%	154	78	6%
346	382	201	21%	437	271	22%
347	66	31	3%	61	26	2%
계	969	469	48%	1,251	705	56%

<표 12> 석, 박사학위논문 인용문헌(단행본) 언어별 현황

구분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인용건수	소장건수	소장비율	인용건수	소장건수	소장비율
한국어	432	263	27.1%	652	457	36.5%
영어	312	142	14.7%	356	188	15.0%
독일어	86	34	3.5%	133	30	2.4%
프랑스어	54	20	2.1%	18	11	0.9%
일본어	50	10	1.0%	42	16	1.3%
중국어	35	0	0.0%	50	3	0.2%
계	969	469	48.4%	1,251	705	56.4%

인용문헌(단행본)을 출판 연도별로 구분하여 도서관 소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석, 박사학위논문에 인용되는 문헌은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1999년도 이전 자료도 10% 내외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출판 연도별로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또한 S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소장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S 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연구 성과관리 시스템에서 2018년도 교수 논문 목록을 입수하여 참고문헌 분류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KCI 논문을 분석하였다. 교수 논문 77편 중 3,087건의 참고문헌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총 856권의 단행본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교수 논문 인용 문헌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856권 중 58% 비율인 499권을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며, 사법(346), 국제법(341), 공법(342) 등의 순서로 인용 건수와 도서관 소장 권 수가 많았다.

언어별로 살펴본 교수 인용 문헌 분석 결과 한국어 382(45%)권, 독일어 198(23%)권, 영어 161(19%)권, 일본어 77(9%)권, 프랑스어 30(4%)권, 중국어 8(1%)권 등 순서로 대학

원생 수준과는 다르게 독일어 자료의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륙법계를 따르는 한국법의 특성상 법학 초기부터 발달한 독일의 영향 받아 독일어로 된 문헌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판연도별로 살펴본 교수 인용 문헌 분석 결과 2015~2018년도 226(26%)권, 2010~2014년도 215(25%)권, 2005~2009년도 137(16%)권, 2000~2004년도 93(11%)권, 1999 이전년도 185(22%)권 등 순서로 인용 건수가 많았다. 이는 대학원생 출판 연도별 현황과 동일한 패턴으로 최신자료의 이용 요구도 높지만 1999 이전년도 자료에 대한 이용 요구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먼저 법학 분야 세부 주제별 장서구성과 이용현황에 있어서 국제법(341), 공법(342), 사법(346) 분야 등에 장서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도서 구입부터 국제법, 공법, 민법 분야의 전공 교수 신청에 의해 도서가 구입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교수 희망 도서에 의존하고 있는 수서방식을 교수 밀착형 사서 중심의 기획 수서로 점차 바뀌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표 13> 석, 박사학위논문 인용문헌(단행본) 출판 연도별 현황

구분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인용건수	소장권수	소장비율	인용건수	소장권수	소장비율
2015-2018년도	215	93	10%	361	208	17%
2010-2014년도	277	132	14%	270	178	14%
2005-2009년도	174	86	9%	199	127	10%
2000-2004년도	123	67	7%	108	47	4%
1999 이전년도	180	91	9%	313	145	12%
계	969	469	48%	1,251	705	56%

법학 분야 세부 언어별 장서의 소장과 이용자 이용 현황에 있어서 한국어와 영어 자료의 소장 비율과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그룹의 국내 및 영어권 박사 취득 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와 영어 자료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서의 최신성과 관련해서 최근 10년 이내에 출판된 자료가 법학도서관 전체 장서의 37.6%를 차지하며 비교적 최신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자 그룹 또한 대체로 최신 자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 자료가 실제 교육과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강의계획서상 자료의 법학도서관 소장 비율이 84%를 차지했지만, 주제별, 언어별 편중된 소장으로 대학원 학습활동 지원이라는 역할의 충실성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학위논문과 교수 논문 인용 분석 결과 이용자들은 대체로 최신자료를 선호하며 국내서와 영어로 된 자료를 선호하였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들의 비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법학도서관의 장서가 최적의 구성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S 대학 법학도서관의 소장 장서 현황과 대출빈도를 분석하였으며 더 나아가 소장 장서가 실제 강의 및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측면에서의 예산과 장서의 양은 여러 도서관 기준에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주제별 분석을 통해 특정 주제 분야와 언어에 장서가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장서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으로 법학 분야 장서뿐만 아닌 이용자 밀착형 수서를 통하여 학제 간 자료와 최근 연구 동향이 반영된 다양하고 전문적인 장서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최신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를 대체로 충족시키고 있지만 국내서에 비해 국외서의 다양성과 최신성이 미비하므로 언어별 고른 분포의 최신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장 장서가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리스트체킹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단행본의 84%를 법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법학(340) 분야 단행본 자료의 미소장률은 높고 주요 수험법학인 공법(342), 형법(345), 사법(346) 분야 단행본 자료의 미소장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를 제외한 다른 언어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장률을 나타내며, 주제별, 언어별로 자료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할 방법으로 교과 개설 과목과 관련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지정도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필독 추천 도서 리스트 등을 배포하여 도서관 홍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연구지원 관점의 장서의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교수 논문 인용자료 58%, 박사학위논문 인용자료 56%, 석사학위논문 인용자료 48%가 법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교수 수준의 장서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주제별로는 사법(346)을 중심으로 장서의 유용성이 높았으며, 비교적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와 최근 10년간 출판된 자료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단기적인 관점에서 는 다양한 이용자 서비스 제공, 사서 중심의 기

획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에 맞는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장서구성의 기준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공영호. 2018. 미국 로스쿨 교수의 양성 방식 및 로스쿨 로리뷰에 관한 쟁점. 『법학연구』, 29(2): 165-192.
- 구본진. 2014. 대학도서관 경제학분야 장서평가에 관한 연구: P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 76: 57-84.
- 김에스더, 남영준. 2015. 의학도서관의 단행본 장서구성을 위한 이용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2(3): 261-276.
- 김황우. 201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나은영. 2011. 『법률도서관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영희, 유소영, 김정택, 박승진. 2017. 충남대표도서관의 장서구성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8(1): 235-264.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9.12.3].
<http://law.snu.ac.kr/page/master_curriculum.php>.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 『2018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보』. 서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학교. 2019. 『도서관보』, 141: 59-80.
- 송영희. 1992. 『장서개발론』. 서울: 구미무역 출판부.
- 양지안. 2017. 대학도서관 대출데이터분석을 통한 장서 이용행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263-293.
- 윤희윤. 2014. 『장서관리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장덕현. 2013. 대학도서관 장서평가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133-152.
- 장신문. 2008.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홍유진. 2019. 『도서 추천을 위한 학부생 대출데이터 기반의 연관 규칙 도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Adams, B. N. 2008. "Circulation Statistics in the Evalua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Collection Building*, 27(2): 71-73.
- Cheung, S. T. and F. N. Chung. 2011. "Monograph Circulation over a 15-Year Period in a Liberal arts University." *Library Management*, 32(6/7): 419-434.
- Evans, G. E. and R. Z. Margaret. 2000.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Intner, S. S. 2003. "Making your Collections Work for You: Collection Evaluation Myths & Realities."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and Technical Services*, 27: 339-350.
- Langdell, C. C. 1887. "Law Quarterly Review." *The Harvard Law School*, 3.
- Powell, N. and M. bushing. 1992. *WLN Collection Assessment Manual 4th ed*. Lacy: WL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 H. 2013. "Assessing a University Library Collectio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Political Science Collection in A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133-152
- Gong, young ho. 2018. "The Methods of Cultivating Future Legal Scholars in the U.S. and The Issues Related to Law Reviews: With a Discussion on Cultivating Future Legal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Law*, 29(2): 165-192.
- Hong, Yoojin. 2019. *Association Rule Mining based on Undergraduate Students Library Loan Records for Recommending Book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 Jang, Sinmoon. 2008. *A Study on Law School Collection Evaluation: the Case of Law Library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Kim, Esther and Young Joon Nam. 2015. "A User Study for the Collection Management of a Medical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Circulation Data of the A-Medic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261-276.
- Kim, Hwangwoo. 2012.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Law School Student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Koo, Bonjin. 2014. "A Study on Economics Collection Assessment in University Library: with Special Reference to P University Library." *Digital Libraries*, 76: 57-84.

- Na, Eunyoung. 201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for Law Libraries*.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 Noh, Younghee, So-Young Yu, Jeong-Taek Kim, and Seung-Jin Kwak. 2017. "A Study o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Measure for Chungnam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8(1): 235-264.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online]. [cited 2019.12.3]. <http://law.snu.ac.kr/page/master_curriculum.php>.
-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2018. *2018's School of Law Year Book*.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 *Library Gazette*. 141: 59-80.
- Song, Younghee. 1992. *Collection Development*. Seoul: Gumimooyeok.
- Yang, Ji-Ann. 2017. "A Study on Use Behaviors of Books through Circulation Data Analysis in a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263-293.
- Yoon, Heeyoon. 2014. *Collection Management*.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